

트럼프 “이란과 이번 주 핵 합의 논의” 이란은 공식 입장 없이 침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종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에 핵 합의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란 측에서는 아직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 기자회견장에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그들이 서명할 수도도 간단한 합의를 초안으로 그려볼래?” 라고 농담조로 묻기도 했다. 이어 “그들이 서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며, “이란은 전후 복구에 집중할 것이고, 다시 핵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전 질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은 최근 미국의 전례 없는 핵시설 공습을 받은 직후이며, 이 회담이 성사된다면 극한 대립 직후의 급격한 전환을 의미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 회의를 B-2 폭격 작전 성공을 기념하는 자리로 활용하며,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했다.

이란은 6월 23일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지만, 이후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동의하며 긴장 완화의 신호를 보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에 따르면, 백악관 특사 스티브 워트코프와 이란 외무부 아바스 아라그치 차관은 한 달 전 마지막으로 접촉했으며, 양측은 6월 15일 오만에서 재회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당시 이란은 미국의 최신 핵 합의 제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6월 12일 이란이 해당 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며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2일간의 전쟁이 발발했고, 이스라엘은 이란 상공을 장악한 뒤 핵과 군사 시설을 공격하고 고위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들을 암살했다.

미국은 6월 21일 대규모 공습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전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에 북한 ‘믿을 건 핵’

미국의 B-2 폭격기가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것이 북한에 어떤 신호로 전달될까.

북한은 이란보다 훨씬 진전된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 미국의 이번 선제공격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정당성과 대러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남대학교 임을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체제 생존 전략의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번 공습을 미국의 선제 군사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자국의 선제 핵공격 능력 향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 북한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라크, 리비아, 이란 등 비핵국가가 외부 개입에 무력했던 전례를 보며 “핵이야말로 정권 보호의 유일한 방패”라는 믿음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맹을 바탕으로

로 핵과 미사일 역량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임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는 공동 무기개발, 합동 군사훈련, 기술이전, 경제·군사 분야에서의 상호의존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란 공습은 북한에 두 가지 메시지를 남겼다. 첫째,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이란과 같은 선제 군사 옵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둘째, 따라서 김정은의 핵무기 집착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외부 공격 시 러시아의 자동 개입 가능성까지 있다. 임 교수는 “이 같은 복합 억지 체계는 미국이 이란에 취한 일방적 군사행동을 북한에 쉽게 적용할 수 없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공격은 북한의 대미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대외정책 전환, 특히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이번 공습은 핵확산 억제가 아닌 정당화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시설 폭격 제한적 평가에 트럼프 “파일럿 공 꺾아내려”



▲ 미 공군 홍보 영상에 공개된 B-2 스텔스 폭격기의 병커버스터(GBU-57) 투하 훈련 모습. 사진=airforce.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6월 26일 이란 핵시설 폭격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정보당국의 초기 평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B-2 조종사들이 굉장히 상심했다”며 정보보고서와 언론 보도가 파일럿들의 공을 꺾아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정보국(DIA)은 초기 평가에서 이번 공격이 이란의 핵 개발을 수개월 지연시키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는 완전하지 않다”며 “현장의 정밀 분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부 정보가 유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 이런 식의 보도를 한다”며 “조종사들을 칭찬해야지, 이들을 꺾아내리는 건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날말퍼즐 정답													
1	알	2	선	3	레	4	포	츠					
		5	물	6	꼬		세		7	분			
					챙		8	이	전	9	투	구	
10	눈		높		이		돈					더	
	썰					11	그		12	뒤	집	기	
13	미		14	숫	가		루		통				
				기			터		15	수	16	여	
						17	현	기	증		18	비	늘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 시간
OC 한인회관
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수요일 오전 10시

성공회 가든그로브 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목요일 오전 10시

☎ 문의전화 T. (818) 404-0241

성공을 향한 여정, KIM & CHOI 회계법인과 시작하세요!

지난 40년간 가든그로브에서 지역 한인 비즈니스와 세무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수행하며 함께 이민사회의 발전과 역사에 동참해온 이광연 회계법인이 KIM & CHOI 회계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CCOUNTING	TAX	CONSULTING
회계업무 급여 관련 예산/재무 계획 각종 세금 관련	개인/회사 세무(타주포함) 인컴텍스/자산계획/관리 IRS, FTB, CDTFA, EDD 세무 회계 감사 해외자산 FBAR-Report	회사 설립 사업 운영 전략 재무/회계 상담 사업 가치 산정 각종 거래 관련

Yongsuk (Bob) Kim, CPA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ember of Gatto McPerson, CPAs, 25 yrs.

Sue Choi
- California State Univ. Fullerton
- Antonios K. Lee, CPA, P.C., 12 yrs.

KIM & CHOI
ACCOUNTANCY, P.C.

T. (714) 539-6444 | 12395 Lewis St. #203
F. (714) 539-9261 | Garden Grove, CA 92840
email: info@kimchoicpas.com